

스토리

에스테리아[Esteria] 탄생

세상에는 빛의 신과 어둠의 신이 있었습니다. 빛의 신은 4가지 원소[수(水), 화(火), 풍(風), 토(土)] 사용하여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물, 불, 바람, 대지의 힘을 이용하여 새로운 대지를 만들며, 이 네 가지 원소는 각각의 특성과 힘을 지니고 있었고, 그 힘을 이용하여 새로운 생명체와 육지, 바다, 하늘을 창조해 **에스테리아[Esteria]** 라는 세계를 만들어 냅니다.

빛의 신은 균형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4명의 원소의 정령[수(水)정령, 화(火)정령, 풍(風)정령, 토(土)정령]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정령들은 에스테리아에 살면서 인간을 창조하며, 인간들에게, 물, 바람, 대지의 능력을 각각 사용할 수 있게 힘을 불어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네 개의 원소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고, 능력을 바탕으로 **불의 왕국** 카르메리아, **물의 왕국** 실마리스, **바람의 왕국** 에레스시아, **땅의 왕국** 그라니스 라는 네 개의 왕국을 만들어 성장하고 번영했습니다.

각각의 왕국은 하늘이 보이는 절벽, 시원한 강, 불타는 땅, 그리고 울창한 숲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네 개의 정령은 각 왕국을 보호하고 지원했습니다. 인간들은 이 네 개의 원소를 이용하여 기술과 마법을 발전시키며 빛의 신과 정령들을 숭배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둠의 지배

어둠의 신은 빛의 신이 창조한 세계와 그 속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보고 엄청난 힘에 대한 탐욕을 키우게 되며 그러한 힘을 얻기 대립을 시작했고,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그 힘을 손에 넣기 위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빛의 신은 어둠의 신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어둠의 신은 말라카르 라는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 에스테리아에 보내어 모르타스라는 세력을 조성했습니다. 모르타스는 어둠의 힘을 더욱 확장시키고, 빛의 신을 봉인하여 에스테리아의 어둠 속으로 가두었습니다.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악으로 물들지 않겠지만 빛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개의 원소 정령들 또한 어둠의 영향을 받아 악의 힘으로 변해갔습니다.

각각의 정령은 악령이 되어 각 왕국의 왕들의 몸속으로 침투하여 그들을 조종하고 세상을 흑으로

물들이는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네 개의 정령이 각각의 왕국을 통제하면서 어둠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지고, 에스테리아는 악의 세력 아래에 무너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구인의 희망

그래도 아직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4왕국의 생존자들이 에스테리아를 되찾기 위해 휴블이라는 세력을 만들어 악을 물리치려는 계획을 짜게됩니다

지구에 사는 인간은 아무 속성도 부여받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며 악화된 정령을 정화시키기 위해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단순히 지구에 사는 누군가 한명을 소환해 빛의 속성을 부여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자들끼리 인간을 데려오기 위해 지구인(플레이어)를 소환하고 빛의 속성을 부여해, 어둠의 영향을 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플레이어는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한 여정에 동참하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세계를 구하러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평화와 행복 그리고 끝

네 명의 정령을 잡고 그 정령들과 함께 말라카르를 잡는데 성공합니다 빛의 신은 돌아오고 그렇게 평화가 찾아옵니다